

靑 ‘불통 개각’... 下野 정국 불붙나

〈하야〉

박대통령 총리지명 강행... 3野 원내대표 “청문회 거부”
안철수·박원순 “즉각 하야하라”·문재인 “비상한 결단”

‘최순실 게이트’ 파문으로 인한 정국 혼란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전격적으로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하는 등 일부 개각을 단행했다.

〈관련기사 2·3·4·6면〉 하지만 야권이 “국민에 대한 선택포고”라며 강력 반발하고 야권 대선주자들은 ‘대통령 하야’까지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이 격랑에 빠져들고 있다.

박 대통령이 이날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인선을 단행한 것은 ‘최순실 비선실세 의혹’ 사태로 흔들리는 국정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의지로 표현된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 책임을 지고 내치에서 손을 떼고 2선으로 후퇴하라는 야권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고 책임총리제를 통해 국정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각은 여야 정치권과의 협의가 전혀 없었고 최순실 파문에 대한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와 진상 규명을 바라는 민심의 흐름과는 거리가 있어 최악의 경우 대통령 하야 정국을 부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당장 야권은 이번 개각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이날 개각 철회를 요구한데 이어 인사청문회 등 일체의 절차에도 응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등 야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긴급 의원총회에서 “최순실 내각을 정리하라고 했더니 제2의 최순실 내각을 만든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도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며 “국민은 이러한 작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런 분노는 탄핵, 하야 촉발을 유발시키게 하는 동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의 대선 주자들은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등 격양된 반응을 나타냈다.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는 이날 오후 나주 학생운동기념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인 해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비상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지금 압도적인 민심은 박대통령이 즉각 하야하고 퇴진해야 된다는 것이고 저는 그 민심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도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며 “박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시라”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개각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개각에 대해 “국정정상화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당내 비박(비박근혜) 진영은 이번 개각에 부정적 반응과 함께 ‘수용 불가’ 분위기를 보이고 있어 상당한 갈등이 예고된다. 박 대통령의 개각 단행으로 정치권의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돼 이번 주말 촛불 집회 등에서 나타날 민심의 흐름이 주목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무슨 생각으로... 김병준 신임 국무총리 내정자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총리 내정 소감을 밝힌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총리 지명 김병준 “3일 입장 밝히겠다”

경제부총리에 임종룡
안전처장관에 박승주

박근혜 대통령은 2일 신임 국무총리에 참여정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62·경북 고령) 국민대 사회과학대학 행정정책학부 교수를 내정했다.

또 신임 경제부총리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57·보성), 국민안전처 장관에는 박승주(64·영광) 전 여성가족부 차관을 각각

발탁하는 부분 개각을 단행했다. 박 내정자의 경우 김 총리 내정자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이러한 내용의 내각 개편안을 발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치권이 요구하는 거국중립내각 취지를 살리기 위해 참여정부 정책실장과 교육부총리를 지낸 김 교수를 책임 총리로 발탁했다”고 말했다.

김병준 내정자는 2일 책임총리로서 국정운영 방향 및 야당의 청문회 거부 등 현

안과 관련해서 3일 별도 회동을 갖고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이날 종로구 삼청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값이라든가 현안에 관한 문제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내일 제가 따로 시간을 한 번 더 만들겠다”고 말했다.

임 경제부총리 내정자에 대해 정연국 대변인은 “내정자는 시야가 넓고 정책경험이 풍부할 뿐 아니라 민간경제 현장에 대한 이해도 깊어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



임종룡

박승주

고 현재 추진 중인 개혁을 마무리하는데 책임이라고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박 안전처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정책 및 현장 경험을 갖춘 내부 관료 출신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조직관리 역량을 발휘해왔다”고 평가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靑 ‘기습 개각’... 광주·전남 주민들 반응 호남 인사 확대 하더니 다급했나? 박대통령 수사 받고 전모 밝혀야

2일 정부의 갑작스러운 부분 개각에 대해 광주·전남지역 주민들은 대체로 현 시국을 해결하는 데는 크게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난국을 모면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전면에서 사태를 수습하기를 바라는 국민 눈높이와는 전혀 동떨어져 실망감만 키우게 됐다는 의견이다.

시민 이근선(39·광주시 남구 진월동) 씨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 실망한 국민의 가슴에 불을 지른 격”이라며 “국민과 야당이 시국을 수습해 나갈 내각을 맡겨도 시원치 않는데 일방적 개각발표는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또 임종룡 경제부총리, 박승주 국민안전처 장관 등 호남 출신 인사 내정에 대해 회사원 채모(47)씨는 “박근혜 정부 내내 중앙 부처에서 ‘호남홀대’로 일관하더니 정권 말기 위기가 닥쳐 소모용으로 발탁한 것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각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청와대 개편이나 개각으로 사태를 호도하려하지 말고 대통령도 수사를 받아 명명백백하게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진성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 시국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혹평했다. 공 교수는 현

정국을 “여·야 모두가 대통령의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어렵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이른바 ‘거국내각’을 출범시켜야만 위기가 그나마 봉합될 것이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한 뒤 “따라서 여·야가 합의한 인물이 아니어서는 곤란한데, 박 대통령은 그 ‘합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국민의 시각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악수(惡手)”라며 “전두환이 지난 1987년 ‘호헌’ 조치를 강행했다가 결국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상황과 유사하게 ‘소탐대실’(小貪大失)하는 모양새”라고 평했다.

광주시의회 박춘수 의원은 “여·야가 인정하는 내각을 한다고 해놓고 이런 식의 개각을 하는 것은 이 난국을 순간 모면하기 위한 짚수 아니겠느냐”고 진단했다.

이어 “이번 개각에서 참여정부 시절 교육부총리를 지낸 분도 계시는데, 아마도 여·야 관계의 숨통을 튼 뒤 향후 길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선 청문회를 보이콧하겠다는데(사전 협의없이 발표한 것은)순서가 틀렸다”고 지적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검찰, 최순실 구속영장 청구

송성각 자택·한콘진 압수수색

현 정부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60)씨 의혹 사건을 조사 중인 검찰 특별 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일 오후 3시께 법원에 최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긴급체포 상태인 최씨에게 검찰은 우선 직권남용 관리행사방해(공범), 사기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2일 대기업으로부터 미르·K스포츠 재단을 위한 출연금을 강제 모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을 불러 조사했다. 또 검찰은 이날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광고감독 차은택 씨의 인맥으로 알려진 송성각(58)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자택과 나주 혁신도시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박정욱기자 jwpark@연합뉴스

김진애가 본 ‘박근혜·최순실’ ▶ 2면
광주 압수수색 급증 배경은? ▶ 6면
썬속의 전남·영광 해양경관 ▶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생각한다. 반응한다. 지능적으로
The New E-Class. Masterpiece of Intelligence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삼부대로 1041 (화정동) / Tel. 062)226-0001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E 300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740kg, 자동9단) 복합연비: 10.8km/ℓ (도심연비: 9.6km/ℓ, 고속도로연비: 12.6km/ℓ), 등급: 4등급, 복합CO2 배출량: 161g/km E 300 4MATIC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790kg, 자동9단), 복합연비: 10.3km/ℓ (도심연비: 9.3km/ℓ, 고속도로연비: 12km/ℓ), 등급: 4등급, 복합CO2 배출량: 169g/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제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 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